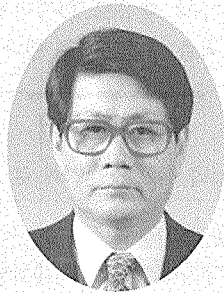


## 국제유가 변동의 이해와 전망



계 덕 남

〈 한국석유공사 석유정보처장 〉

금년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이라고 기상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석유 값은 최근 들어 배럴당 38달러를 돌파하여 80년 Gulf전 이후 최고 기록을 보이다가 10월 들어 급락하여 30달러를 중심으로 다소 안정적인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급등과 반락의 추세는 지난 9월 10일 OPEC 총회에서 하루 80만 배럴을 증산하기로 한 결정이 겨울철 수요에 못 미칠 것(부족할 것)이라는 시장의 판단에 따라 상승하다가 미국이 동북부지역의 겨울철 난방유 부족을 해결하고 국제석유시장의 과열을 저지하기 위하여 클린턴 대통령이 10월부터 자국의 전략비축유(SPR)를 방출하기로 결정함으로써 반락세로 돌아섰기 때문이다.

미국은 5억7,000만배럴의 전략비축원유(SPR)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방출의 규모는 한달 동안 3,000만 배럴로서 결국 한달 간 하루 평균 100만배럴씩 방출한다는 것이다.

이는 비록 단기간이기는 하나 OPEC의 증산규모(80만b/d) 보다 크며 세계 최대 소비국인 미국이 비축유 방

출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사용함으로써 유럽, 일본 등에 많은 논란을 던져주는 동시에 OPEC에게도 역시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11월의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전략비축원유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비난도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석유가격과 국제석유시장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지는 특히 석유에너지의 대외의존도가 100%에 이르는 우리 나라와 같은 경우에는 매우 중요한 이슈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국제석유시장의 구조와 변화를 알아보고 거기에 알 맞는 대처를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다.

과연 석유시장의 진정한 지배자는 누구인가? 그리고 그 지배자는 어떠한 속성을 가지고 시장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정책을 펴나갈 것인가에 대하여 생각할 필요가 있다.

### 돌아온 OPEC

우리는 73년 그리고 80년 2차에 걸쳐 불어닥친 석유 파동을 경험하면서 석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OECD를 비롯한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논의하면서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그들은 석유수출국기구(OPEC)의 생산력을 무력하게 할 그들의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보다는 석유 이외의 대체에너지를 개발하고 단계적으로 공급에 대비하는 비축증강 방침을 채택하였다. 이의 의미는 미국을 비롯한 선진제국들은 OPEC을 대체할 새로운 석유를 찾기는 힘들다고 판단한 결과로 해석된다. 경제적으로는 시장에서 OPEC의 가격과 경쟁할 수 없는 상태로서 매장량이나 생산 코스트(cost) 면에서 적수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OPEC의 지위는 과연 얼마나 확고 부동한 것인가?

OPEC는 96년과 98년 10달러 이하로 유가가 떨어지는 수모(?)를 겪으면서 쓰라린 교훈을 얻었다. 그 교훈은 힘을 합치지 않으면 Gulf전 이후 계속되는 유가 하락으로 그들의 살림살이가 파산지경에 이르게 되어 결국 모두가 같이 멸망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간단한 진리(?)였다.

98년 3월의 제104차 OPEC 총회는 새로운 OPEC의 면모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이었다. OPEC는 당시 10달러대에서 맴도는 석유가격을 끌어올리기 위해 4월부터 공동생산 감축(125만b/d)에 나서기로 결정하였고, 여기에다가 비OPEC 석유수출국인 노르웨이와 멕시코, 러시아 등이 감산 및 수출감축에 가세하면서 유가는 얼마안가 곧바로 20달러 대로 경충 뛰어올랐다. 결국, 공동 생산 감축을 통한 OPEC의 유가부양 노력이 성공한 셈이다.

그러나,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나 서방 소비국 측에서는 과거에도 OPEC가 생산쿼터를 정하여 놓고도 약속과 달리 70%에도 못 미치는 쿼터준수율을 보여왔던 점을 상기하면서 이번에도 OPEC의 유가부양 노력을 과소 평가했다. 그만큼 시장에서의 OPEC의 신뢰도는 크게 평가되지 못하였다.

그러나, 파경에 이르는 국가 재정과 경제는 OPEC 회원국들이 쿼터를 준수하지 않으면 공멸할 것이라는 공감

대를 형성하는 토대가 되었다. 특히, 그 동안 생산쿼터를 가장 상습적으로 위반(쿼터이상 증산)하는 국가로 지목되어 온 이란, 베네수엘라 등이 적극적으로 쿼터 준수에 나선 결과 OPEC의 공동 생산 축소는 더욱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었다.

이러한 OPEC의 돌연한 태도 변화는 결과적으로 많은 석유시장 전문가들을 거짓말쟁이로 만들어버렸다. 이어 99년 3월에 열린 107차 총회에서 OPEC가 172만 b/d를 추가로 감산하기로 결정하면서 국제유가는 다시 30달러로 상승했다. 이 감산으로 OPEC는 그 동안 세 차례에 걸쳐 총 420만b/d 감산에 나섰고, 이 결과 OPEC 총 산유량은 기존의 2,700만b/d에서 약 15% 감소한 2,300여만b/d 수준으로 떨어져 약 5% 이상의 물량이 국제석유시장에서 사라지게 된 것이다. 결과적으로 말해 OPEC는 단 15%의 감산을 통해 10달러선의 가격을 30달러로 상승시키는 300%의 효과를 가져온 것이다.

참으로 놀라운 결과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아무리 한계공급탄력성이 적은 상품이라고 하더라도 석유자원의 필수적 확보성향이 여실히 증명하고 있으며, 낮은 유가로 팽창 할대로 팽창된 수요가 아시아 경기 회복이라는 상승곡선을 맞아 더욱 큰 승수 효과를 가져온 결과이다. 이렇게 감산의 폭은 100만 b/d 이상으로 시장에서 큰 충격을 주는 요법으로 3회 이상 시행되어 그리고 그 쿼터가 OPEC 회원들간에 잘 지켜지므로 해서 OPEC의 신뢰는 국제시장에서 크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OPEC의 유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가의 발표나 시장 논평은 바로 시장에 영향을 주게되어 이들이 감산을 논할 때는 유가가 오르고 증산을 논할 때는 유가가 내리는 “뉴스”와 “루머”에 따라 출렁이는 석유가격이 된 것이다.

분명히 1,2차 석유파동시의 OPEC를 연상케 하는 공포와 두려움의 그림자가 밑바닥에 깔려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OPEC는 과연 70년대의 영광을 되찾고 그들의 발언권을 계속해서 유지하여 나갈 수 있을까? 외신 보도를 보면 최근 OPEC 총회장에는 1,2차 석유파동 때보다 더 많은 기자들이 들끓고 있다고 한다. 참으로 “돌

아온 OPEC”의 위상은 더욱더 그 그림자가 크게 보이고 있는 것이다.

### OPEC도 한계는 있다

지금까지 우리는 사라졌던 OPEC가 더 큰 힘으로 우리에게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었다. 70%를 점하는 국제 석유시장을 놓고 볼 때 그들의 힘이 석유 값을 올렸다 내렸다 마음대로 할 수 있을까?

그러면 OPEC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자못 공급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대한 대답은 제3차 감산(172만b/d)이 99년 3월에 있었던 이후 정확하게 1년 후 나타나고 있다. 2000년 3월 109차 총회에서 172만 b/d의 증산을 결정하여 소비국의 요구에 화답하는 태도를 취하였다. 이는 지나친 고유가는 궁극적으로 세계 경제를 침체시켜서 석유 소비가 줄어들게 된다는 점과 석유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가 석유의 지위를 박탈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이때 국제유가는 다시 20불대로 떨어지고(Brent 기준 22불) OPEC는 새로운 유가정책으로 유가밴드(Band)제를 주장하였다. 유가밴드제도는 그 하한을 22불로 하고 상한을 28불에 두어 상·하한선을 넘어서는 50만b/d를 즉각 증산하거나 감산하여 국제유가가 22불과 28불 사이에 변동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油價가 유가밴드 상한선인 28불을 넘어서는 경우가 몇 차례 있었으나 OPEC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고 대신 OPEC 임시총회로 증산여부 결정을 미룸으로써 유가는 더욱 상승압력을 받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러자, OPEC는 지난 6월 임시 총회를 개최, 유가안정을 위해 약 71만 b/d의 증산을 합의하였으나, 유가는 당시 잠시 주춤했을 뿐 미국의 드라이빙 시즌에 따른 휘발유 공급부족과 태풍으로 유가는 다시 걸프전후 최고 기록을 연일 경신하면서 전세계에 걸쳐 유가불안심리를 불러일으켰다.

고유가 불안으로 전 세계에 걸쳐 증산압력이 거세게 일자 OPEC는 9월 총회에서 다시 80만b/d를 증산하기

로 결정함으로써 결국 올 들어 세 차례에 걸쳐 도합 320만b/d 증산합의에 나섰음에도 불구하고 유가는 고개를 숙이기는커녕 오히려 걸프전이래 최고라는 신기록을 수립하기에 이른다.

IEA(국제에너지기구) 발표에 따르면 2000년도 세계 석유수급사정은 하루 평균 약 100만배럴 정도의 공급과잉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통상 공급부족을 보이던 4분기 수급사정이 올해는 OPEC의 80만b/d 증산으로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IEA 석유수급 전망

(단위:백만b/d)

구 분	1/4	2/4	3/4	4/4	평 균
세계수요	75.0	73.9	75.8	78.5	75.8
세계공급	75.2	76.2	77.4	78.5	76.8
수급균형	+0.2	+2.3	+1.6	-	+1.0

\*상기 OPEC 4분기 생산전망은 OPEC(이라크 제외)가 신규 생산쿼터(2,620만b/d)를 준수하고, 이라크가 현, 생산수준(290만b/d)을 그대로 유지할 것이라는 것을 전제(2,620만b/d + 290만b/d ⇒ 2,910만b/d)로 하고 있음

수급 측면만 가지고 볼 때 세계석유시장에서 석유는 결코 부족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국제유가는 그러나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좀처럼 진정의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그나마 고무적인 현상은 OPEC가 유가안정을 위해 증산에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아직까지 유가가 진정되지 않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OPEC는 금년 들어 총 세 차례의 증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지난 1년이 감산의 연속인데 반해 올해는 증산의 연속이다. 올해 OPEC는 3월, 6월, 9월 총회에서 도합 하루 약 300여만배럴 가량의 증산에 나서기로 합의했다.

이러한 증산규모는 과거 OPEC의 감산규모(430만 b/d)에 근접해 가는 수준으로 흡족한 편은 아니지만 산유국, 특히 OPEC가 소비국의 유가안정 요구에 점차 부응해 가는 생산정책을 펴고 있다는 반증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러한 태도변화는 세계경제에 플러스 요인임에는 틀림없으나 시장의 요청에 의도적으로 다소 늦게 반응함으로써 가격상승을 유도하는 동시에 증산합의규모도 조금씩 모자라거나 균형을 도모하는 수준의 타이트한 수준을 유지토록 함으로써 증산에 따른 유가폭락을 방지하려는 이중의 시책을 펴고 있지 않나 생각된다.

OPEC가 증산을 통해 유가 연착륙을 기하려는 태도는 소비국의 유가안정 요구를 어느 정도 고려하고 있다는 반응으로 이해되고 있다는 점에서 일견 바람직한 것으로 볼 수 있겠으나, 증산의 시기가 시장이 필요로 하는 시기와 부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타이밍을 잃음으로써 소비국이 기대하는 유가 하락 폭은 적게 하고 오히려 상승폭은 크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다.

한편, 주목할 점은 3차례의 증산결정으로 이라크를 포함한 OPEC의 총 생산수준이 2,900만b/d에 이르러 현재 이들의 생산능력수준인 3,200만b/d에 거의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OPEC의 증산여력은 고작 300여만b/d에 불과한 수준이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 중 200만b/d는 사우디에 편중되어 있다.

이 결과, OPEC가 다시 증산에 나서려고 해도 사우디, UAE 등을 제외한 나머지 OPEC 회원국의 증산여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선뜻 증산결정을 내리기 힘들다. 만일 이런 상황에서도 OPEC가 소비국의 증산압력에 밀려 겨울철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다시 증산에 들어간다면 증산에 따른 이익은 사우디를 비롯한 소수 1~2국에만 돌아갈 형편이다.

이렇게 볼 때 OPEC 역시 생산능력한계로 인해 수요증가시 이를 제대로 흡수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늘어나는 석유수요를 감당하지 못하는 생산자는 심각한 자기 고민에 빠질 수밖에 없다. 생산능력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생산자인 OPEC 역시 막대한 투자 재원과 기술을 소비국인 서방에 의존하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OPEC는 서방의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정책을 펴야 하며, 때문에 서방의 주요 석유 소비국을 괴롭히는 감산이나 고유가의 정책드라이브 추진은 힘든 상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울러, 불과 1년만에 잉여생산능력이 절반수준으로 푹 떨어졌고, 잉여생산 능력도 대부분 사우디에 편중되었다는 점에서 과거 그 어느 때보다 OPEC에서 사우디의 영향력이 커졌으며, 사우디의 정책은 다른 어느 OPEC보다도 친미 성향을 갖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런 상황을 종합해 볼 때 바야흐로 산유국과 소비국은 서로 대화하고 협조하는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이다.

### 미국 SPR 방출

중동은 국제사회에서 “화약고”라고 불리우고 있다. 이는 석유가 인화성 물질인데다가 여러 가지 정치적 분쟁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혀적인 분쟁으로써 회교와 기독교간의 갈등, 1,2차 대전이 만들어낸 국경선, 종파간에 서로 다른 종족간의 갈등 등 수많은 분쟁요소들이 있는데다가 없어서는 안될 석유가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세계 열강들이 이 지역에 자국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최근 미국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략비축유(SPR)” 중 3,000만배럴을 방출하기로 결정하고 BP 등 11개사에 배정하였다. 방출속도를 보면 한달간(10월~11월중) 3,000만배럴이므로 하루 평균 100만배럴에 해당하며 이는 OPEC가 10월부터 증산하기로 한 80만배럴에 비하면 규모가 다소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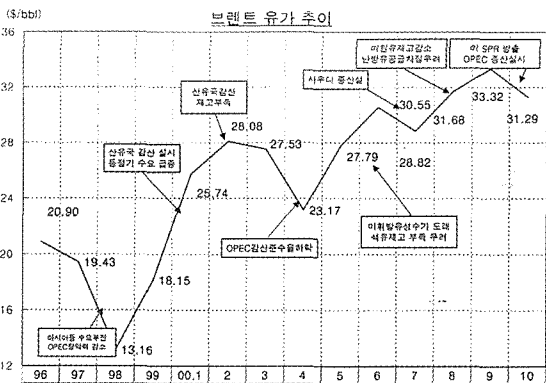
방출이유를 살펴보면 미국 동북아지역의 겨울철 난방유 재고 부족을 해결하는 동시에 치솟는 국제원유가격을 진정시키려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자국내 석유시장의 계절적(동절기) 수급차질을 염려하여 SPR을 방출하고 동시에 감내하기 힘든 고유가의 수입 석유를 줄임으로써 고유가를 안정화시키자는 것이다.

거기에도 11월 7일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를 유리하게 하자는 복선도 깔려 있다고 보인다. 물론 클린턴 대통령이나 리차드슨 에너지장관은 정치적인 목적은 없다고 부인하고 있으나, 공화당 Bush 후보측은 그렇지 않다. 여기에도가 필요하다면 추가적인 SPR 방출

을 거론하여 동절기 석유시장을 안정시키려는 의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당초 IEA(국제에너지기구)는 중동전쟁이나 OPEC의 인위적 석유금수와 같은 석유자원의 공급단절에 사용하기 위하여 90일분 이상의 비축의무량을 규정하고 있어 이번 미국의 SPR 방출은 IEA 회원국들 간에 논란의 대상이 된다고 생각된다. 비록 전쟁이나 공급차질이라는 비상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국내수급차질과 국제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에도, 비축 90일분 유지를 전제로 비축유 방출이 가능하다는 선례를 보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SPR 방출의 효과는 국제원유시세를 2주만에 \$35~38/B선에서 \$31~32/B 수준으로 끌어내리는데 성공하고 있다.



### 불안한 중동정세와 국제유가

다시 중동에서 전운이 감돌고 있다. 지난 10월 11일 요르단 서안과 가자 지구에서 이스라엘이 헬기공격을 감행하고 국가비상내각을 구성하여 총동원령을 발동했다. 이에 맞서 팔레스타인 측도 총동원령과 연일 평화적 사태 해결에 대한 반대시위를 함으로써 양측은 사상자가 속출하고 있다.

이와 관련 국제석유시장에는 최근의 중동 사태가 악화되어 제5차 중동전이 일어나서 석유공급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로 다시 꿈틀대고 있다. 유가는 미국 비축유 방출결정으로 30달러선으로 진정된 것도 잠시 또다시 36달러선으로 다시금 꺾충 뛰었고 전

세계는 또다시 불어닥칠지 모르는 모래 폭풍을 공포의 시선으로 주시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은 지난 73년 제4차 중동전이 일으킨 제1차 석유위기와 2차 석유위기를 일으킨 79회의 이란·이라크 전쟁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고 있다.

즉, 1·2차 석유위기를 가져온 전쟁들은 영토확장이 근본적인 이유였고 이스라엘을 둘러싼 열강, 즉 이집트-시리아가 1차 위기의 주역이었으며, 2차 위기는 주요 산유국인 이란-이라크 등이 전쟁상대국이거나 침략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반이스라엘 감정과 반페르사(이란)라는 종족과 종족의 갈등이 즉각적으로 아랍전이란 결과로 이어지는 영향력이 국제석유시장에서 공급장애라는 폭풍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이 당시가 국제정치 이데올로기와 냉전이 상존한 시대였다면 지금은 팍스아메리카나(PAX-Americana)를 토대로 화해와 평화라는 해빙 무드에 놓여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중동사태를 아랍(Arab)의 단결을 호소하고 OPEC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기회로 이용하려는 움직임은 없지 않으나 당사자인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UN의 중재를 받아들여 카이로 정상회담을 갖자는 데 동의하고 있어 확전의 기미는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지금까지의 국제유가는 새 천년에 새로운 양상을 보여 20세기의 그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생산자인 OPEC는 22~28달러라는 Band 선에서 유가가 안정적으로 추이하도록 함으로써 소비국 측의 급격한 석유대체에너지원 개발의지를 견제하는 한편, 적절한 소비시장을 보호하는 선에서 기본정책의 축을 유지하려고 애쓰고 있다.

한편, 소비국에서는 유가수준으로 25달러 이상의 높은 대가를 지불하기에는 어렵고 따라서 보유재고(비축유)를 방출하여서라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유지하여 유가안정을 도모코자 노력하고 있다.

순간 순간의 급변하는 중동정세와 겨울철 날씨, 그리고 재고변동 등이 유가향방의 주요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보이나, 2001년은 지금보다 낮은 유가가 기대된다. ☹